

제33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좌담회 말씀 정리

(연구공동체관, '13.11.8.)

<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13.10.29(화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
- 패 널 : 미래부 연구공동체관 용홍택, (사)대덕클럽 부회장 이규호 등
- 주 제 : 대덕연구단지 40주년 어디로 가야하나?

□ 미래부 용홍택 연구공동체관 말씀

○ (서론)

- 주제가 어려운 주제인데,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표준(연)을 비롯한 대덕의 연구기관이 초창기 정부 출연기관의 성공적 모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.
- 강대임 표준(연) 원장님의 발표내용과 여러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·요약해 본다면 초창기 출연연 성공의 배경은 '믿고 맡기는 것', 바로 '믿고 맡기는 것'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.
- 이는 과거 1970년대 대통령께서도 장관에게 믿고 맡기고, 장관께서도 출연연에 믿고 맡겼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이에 저도 믿고 맡기는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인내심을 갖고 현장에 대해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느냐가 출연연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하겠습니다.
- 20년 공직생활동안 요즘처럼 대덕에 자주 온 적이 없었는데,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믿고 맡기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○ (본론)

- 대덕특구가 지표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 세 가지,

그리고 나아가야 할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도 꼭 세 가지가 나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인데, 두 가지는 아쉽고 네 가지는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큐브, x, y, z 축의 입체로 생각할 수도, 포인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
- 생각해야 할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, 첫째 R&D, 둘째 생태계, 셋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.
- 첫째 R&D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습니다만, 기술이전을 보면 2005년 580억원에서 2012년 1,000억원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. 다른 부분이 5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.
- 둘째, 생태계입니다. 특구는 R&D 중심으로 흐르다보니 좋은 씨앗은 많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업 측면의 가치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
- 셋째, 인프라입니다. 연구기관, 기업체 등 하드웨어적인 것은 충분하지만 문화 예술적 측면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.

○ (결론)

- 그렇다면,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는, 첫째 글로벌, 둘째 브랜드, 셋째 허브입니다.
- 글로벌에 대해서는 패널 세 분이 모두 잘 얘기해 주셨으니 생략하고, 브랜드 관련해서 일단 대덕특구에서 나온 기술은 세계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신뢰 받을 수 있는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떠한 핵심, 구심체가 있어야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. 대덕특구도 경기도 지마크, 서울 하이서울처럼 브랜드화하기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.
- 마지막으로 허브입니다. 대덕특구는 특구의 1번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특구로 전파할 수 있는 허브 역할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학기술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남미에서 대덕특구 배우기 위해 대통령까지 올 정도이니 충분하다고 봅니다.

- 창조경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, 대덕특구가 창조경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지금까지도 특구가 많은 부분 창조경제에 기여해왔고, 이노베이션의 중심축으로 존재해왔습니다. 지금까지 창조경제가 부분적인 수준이었다면, 앞으로는 하나의 도도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. 창조경제가 추후 또 다른 개념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그 흐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, 대덕특구가 창조경제의 허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.